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8.9(금) ~ 2024.8.15(목)

제공일시 2024 08 2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8.9(금) ~ 2024.8.15(목)

제공일시 2024 08 2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中, '녹색 전환' 명분 원전 건설 가속화... 10년 새 2배 늘린다

- 중국이 2035년에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의 2배인 10% 수준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이 13일 보도함

- 에너지난과 기후 위기 속에서 유럽도 원자력 발전으로 유턴하는 추세 속에서 중국도 녹색 저탄소 순환 발전 경제 체제로 전환을 명분 삼아 원전 추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기가 93기인 미국에 이어 56기로, 프랑스와 함께 공동 2위인 중국은 2022~2023년 20기의 추가 건설을 승인함

[\(연합뉴스 2024.8.13\)](#)

2. 日, 자국산 배터리 밀어준다... “내년부터 국가 전력 관련 입찰서 우대”

- 일본 정부가 전력 관련 입찰을 진행할 때 자국산 배터리를 우대하기로 함

- 10일 니혼게이지아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내년부터 전력망 에너지 저장시설 등 입찰 시 배터리 시스템의 이상이 발견될 때 주요 대체 부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거점 정비'를 입찰 요건으로 신설할 방침임

- 새 입찰 요건이 적용되면 국외에 거점을 둔 해외 업체는 불리하고, 파나소닉이나 교세라 등 일본 기업은 유리해질 것이라고 닛케이이노 전함

[\(매일경제 2024.8.10\)](#)

3. EU, 中 희토류 견제 역내 생산 촉진·규제책 10월 발표

- 전세계 희토류 공급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조치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국가 경제성장을 원유와 석유가 아닌 희토류와 반도체가 이끌면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 8일 ABC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 관련 미국의 제재를 피하고 희토류 장악력을 이용해 제조 공급망까지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외 국가들은 자국에서 희토류를 생산하거나 다른 공급원을 찾아 나서고 있음

[\(이투뉴스 2024.8.9\)](#)

국내 정책

1. 정부, 전기차 무상점검·배터리 제조사 공개 권고

- 정부가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 불안 우려 경감을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과 함께 그간 비공개해 왔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함
- 13일 현재까지 현대차·기아와 벤츠가 무상점검을 예고했으며, 현대차·기아·BMW코리아·벤츠코리아 등이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상태임. 정부는 타 기업에도 무상점검 및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예정임
- 또,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을 추진함

[\(이뉴스투데이 2024.8.13\)](#)

2. SMR 신기술 이끌 '가상원자로' 나온다... 슈퍼컴 6호기 확보 '관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약 5000억 규모 '글로벌톱(TOP) 전략연구단(전략연구단)'으로 최종 선정된 'SMR 가상원자로 플랫폼 개발사업단'의 구체적인 R&D(연구·개발) 계획이 공개됨
- 전략연구단을 이끄는 조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 디지털원자로AI(인공지능)연구센터장은 최근 열린 '제1회 원자력아카데미'에서 이같이 밝힘
- 조 센터장은 "가상원자로 플랫폼은 '차세대 원자로'로 불리는 SMR 기술 실증을 위한 필수 기술"이라고 함

[\(머니투데이 2024.8.11\)](#)

3. 금융감독원, '주주이익 침해' 운용사 실명 공개 추진

- 금융당국이 투자자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자산운용사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함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열린 임원 회의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기관 투자자들의 스톱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이행이 중요하다"며 "주주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 사례의 경우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함
- 현행 규정상 자산운용사는 펀드 자산의 5%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매년 4월 말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해야 함
- 앞으로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자본거래 등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운용사 실명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게 감독당국 구상임

[\(한겨레 2024.8.13\)](#)

글로벌 기업

1. MS, 스코프 3 문제 해결 위한 분산형 커뮤니티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 미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공급 업체인 피벗 에너지(Pivot Energy)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지역 사회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클린 테크니카, ESG 투데이 등의 외신이 보도함
- 미국 전역에서 최대 500메가와트(MW) 규모로 개발될 예정임
- 이번 계약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첫 번째 주요 분산형 발전 포트폴리오(distributed generation portfolio)임

[\(임팩트온 2024.8.13\)](#)

2. 스텔란티스, 세르비아에서의 생산으로 '중국산 EV'와 경쟁 대비

- 스텔란티스(Stellantis) 그룹이 세르비아의 크라구예바츠(Kragujevac) 공장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와의 경쟁에 대비할 것이라 밝힘
- 최근 스텔란티스 휘하의 이탈리아 브랜드 피아트(Fiat)가 세르비아 크라구예바츠의 공장에서 브랜드의 새로운 전기차 '그랜드 판다(Grande Panda)'의 생산이 시작되었음을 알림

[\(서울경제 2024.8.11\)](#)

3. 배터리, 전기차 선택 기준으로 우뚝... 中 CATL, 오프라인 매장 출격

-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닝더스다이(CATL)가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등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음
- 12일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CATL은 지난 10일 중국 서남부 쓰촨성 청두에 첫 오프라인 매장인 '신에너지 생활 광장'을 열었음
- 중국 경제매체 신량재경은 "자동차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해석함

[\(조선일보 2024.8.12\)](#)

4. 일본, '분리막' 활용한 새로운 탄소 포집 기술 개척 중

- 일본 기업들이 산업 현장에서 이산화탄소(CO2) 포집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탄소 포집 기술을 개척하고 있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최근 보도함
- 일본의 메이저 소재 그룹인 '니토 덴코(Nitto Denko)'는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되기 전에 추출하도록 설계된 분리막 생산에 20억 엔(약 186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이 분리막은 배출되는 탄소의 약 90%를 포집할 수 있음

[\(임팩트온 2024.8.13\)](#)

국내 기업

1. 현대글로벌비스 자동차운반선 '100% 폐식용유 바이오연료' 적용 확대

- 현대글로벌비스가 자동차 운반선(PCTC) '글로벌비스 코스모스(GLOVIS COSMOS)'에 100% 바이오 선박유를 도입함
- 13일 싱가포르 해양바이오연료 공급업체 '토탈에너지스 마린 퓨얼스(TotalEnergies Marine Fuels)'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현대글로벌비스의 글로벌비스 코스모스에 B100 바이오연료 700미터톤(mt)을 공급함
- 현대글로벌비스가 받은 선박유는 해양 바이오 디젤 연료 'UCOME' 기반 폐식용유 메틸 에스테르임

[\(더구루 2024.8.13\)](#)

2. LG화학, 최고 수준 친환경 난연 소재 개발

- LG화학이 불에 잘 타지 않는 친환경 난연 소재를 개발함
- LG화학은 12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과불화화합물이 없는(PFAS-Free) 난연 플라스틱(PC/ABS) 소재가 미국 인증 표준 난연성 테스트인 UL 94에서 V-0 등급 인증을 받았다고 밝힘
- PFAS가 없는 PC/ABS 소재로, V-0 등급 난연 성능을 인증받은 것은 LG화학이 처음임

[\(파이낸셜뉴스 2024.8.12\)](#)

3. 에쓰오일, 국내 SAF 설비 착공 추진

- 에쓰오일(S-OIL)이 국내에 지속가능 항공유(SAF) 생산 설비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함
- 13일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사힌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2026년 이후 국내 SAF 전용 생산 설비 조성을 검토하고 있음
- 에쓰오일이 SAF 투자를 적극 검토하는 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이 개정된 영향이 큼
- 에쓰오일을 포함한 국내 정유 4사는 2030년까지 SAF 분야에 약 6조원을 투자할 계획임

[\(아시아경제 2024.8.13\)](#)

4. 美, 한화큐셀 조지아 태양광 공장에 2조원 대출 지원

- 미국 정부가 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태양광 통합생산단지에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함
- 8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단지 건설에 14억5000만 달러(약 1조9952억원)의 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힘
- 에너지부의 금융지원은 조건부로 이뤄졌으나, 한화큐셀은 조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짐

[\(뉴시스 2024.8.9\)](#)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8.9(금) ~ 2024.8.15(목)

제공일시 2024 08 2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IRA 첫째 프로젝트 40%, 연기 또는 무기한 중단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프로젝트 중 총 840억 달러(약 115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들이 2개월에서 수년 이상 연기됐거나 무기한 중단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FT는 IRA와 반도체법(Chips Act) 시행 첫해에 발표된 1억 달러(약 1370억원) 이상 규모의 제조 관련 프로젝트들을 분석했음. 기업들은 시장 상황 악화, 수요 감소, 중요한 선거 연도에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말했음
- 보류된 가장 큰 프로젝트로는 오클라호마주 에넬(Enel)의 10억 달러(약 1조3700억원) 규모 태양광 패널 공장, 애리조나주 LG에너지솔루션의 23억 달러(약 3조1500억원) 규모 배터리 저장 시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앨버마를(Albemarle)의 13억 달러(약 1조8000억원) 규모 리튬 정유 공장 등이 있음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8월에 미국의 러스트 벨트를 되살리고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IRA와 반도체법을 승인했음
- IRA와 반도체법은 미국의 클린테크와 반도체 공급망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4000억 달러(약 547조원) 이상의 세액 공제,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했음
- IRA 첫째해에 2200억 달러(약 300조원)가 넘는 클린테크 및 반도체 제조 투자가 발표되었고, 기업들은 새로운 보조금을 활용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미국으로 프로젝트를 이전했음
- 그러나 중국의 과잉 생산, 전기 자동차 수요 감소, 정책 불확실성과 결합한 거시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추가 진전은 둔화됐음
- 맥시온(Maxeon), 헬리엔(Heliene), 마이어 부르거(Meyer Burger)를 포함한 여러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는 베이징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글로벌 가격이 폭락한 후 작년에 미국 공장 건설을 연기했음
- 전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수요 감소도 제조 확장 계획의 지연을 이끌었음. 한국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삼기는 앨버마주에 전기 자동차 라인을 추가하는 계획을 1~2년 연기했음
-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도 불확실성을 더했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가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IRA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음
- 태양광 제조업체인 VSK 에너지(VSK Energy)는 작년에 콜로라도주 브라이튼에 2억5000만 달러(약 3400억원)를 투자하고 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는 계획을 철회했음
- 일부 지연은 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라 발생했음.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반도체법 자금 지원이 더디고 IRA 규정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음
- 전해조 제조업체인 넬 하이드로젠(Nel Hydrogen)은 수소에 대한 세액 공제 규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시간주에서 4억 달러(약 5500억원) 규모의 공장 프로젝트를 중단했음
- 조지아주의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인 애노비온(Anovion)은 IRA의 전기 자동차 규정에 대한 명확성 부족으로 8억 달러(약 1조1000억원) 규모의 공장을 1년 이상 연기했음

- IRA의 세액 공제는 2032년까지 연장됐고 반도체법은 선정된 프로젝트에 많은 자금을 제공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생산 이점표를 달성할 때까지 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도 있음

- 애리조나주 카사 그란데 시장인 크레이그 맥팔랜드는 “인건비와 공급망 때문에 모두가 예상보다 높은 비용에 직면했다”고 말했음

[\(임팩트온 2024.8.14\)](#)